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월 10일(주일) 제1327호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온누리의 생명나눔의 기적. 이재훈 담임목사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4월 3일까지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공동체 및 홈페이지 신청, 헌혈하고 인증사진 또는 한 줄 소감

온누리교회가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의 기적’을 이어간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실시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1월 4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면 된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90일 동안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완독하면 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소속 공동체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신청하면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 초대받는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45분~6시, 6

시 45분~7시(새벽기도회 전후 15분 동안)에 단체대화방에 ‘십자가 아이콘’을 한 번만 올려 출석하면 된다. 성경일독은 당일 분량을 다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청하고 ‘한 줄 소감’을 단체대화방에 올리면 된다. 성경일독을 돕기 위해 주 1회 공동체 담당 교역자가 진행하는 온라인 모임 및 소그룹 나눔도 진행된다.

성경일독표와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는 단체대화방, 온누리교회 유튜브, 예배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완주하는 성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준다. 아이스쿨 학점도 받을 수 있다.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모두 완주하면 4학점, 성경일독만 완주하면 2학점을 부여한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도 90일 동안(1월 4일~4월 3일) 진행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헌혈소를 방문해서 헌혈하고,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010-2004-4800)로 전송하면 된다. 성도들의 인증사진과 참여 소감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매일 업로드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프로젝트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이재훈 담임목사 저서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를 선물한다.

SNS에는 “새해의 시작을 작은 생명을 나누어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피로회복 프로젝트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헌혈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등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들의 간증과 소감이 줄을 잇고 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90일의 기적 Q&A

·아직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새가족 과정 중이거나 아직 출석교회를 정하지 않은 성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온라인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 1회 온라인 모임을 합니다. 공동체 담당목회자가 한 주 동안 통독한 성경 본문의 흐름을 정리해 주고, 성도들은 한 주 동안 경험한 은혜를 소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음성파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음성이 담긴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음성파일이 단체대화방(카카오톡)을 통해 공지됩니다. 등록교인은 예배예약 웹페이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쿨 학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모두 완주한 경우 아이스쿨 필수 4학점이 인정됩니다. 성경일독만 완주한 경우는 2학점(OBC 성경통독 수강한 성도는 중복학점 인정)이 인정됩니다. 새벽기도회만 참석한 경우는 소정의 선물을 줍니다.

·아이스쿨 학점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벽기도회의 경우 65회 중에서 60회를 참여하면 완주로 인정합니다. 성경일독의 경우 종료 이후 1주일의 기간을 더 드립니다(4월 10일까지).

·90일 공동체 성경읽기를 끝내고 간증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간증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90일의 기적은 아이스쿨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이스쿨에서는 점수 및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과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의 참여가 다른가요?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공동체에 신청하고,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월 31일, 2월 7일 선교헌금 작성

홈페이지, 영상 예배 QR코드, 유튜브 채널

2021년 선교헌금작정을 1월 31일과 2월 7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 클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선교헌금 작성서에서 신규헌금,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금액, 전사서명을 입력하면 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는 2000선교본부에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은 지난해에 코로나19 긴급구호에 힘썼다. 60개국 56,606세대에 약 10억 원 상당의 식량, 위생용품,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문의: 02-3215-3616

/ 김영선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최신 과학은 과거 진화론의 증거를 부정한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믿음을 과학적 사실로 둔갑시켜 그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다윈이 주장한 공통조상으로부터의 진화는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처음부터 린

네가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였기에 같은 계통에 있는 것들은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신다윈주의의 단속평행이론은 유전자 돌연변이와 적응이 급격한 진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연주의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반증가능한 주장이 아니기에 과학적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이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진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발견된 어떤 돌연변이도 생존에 유리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과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다윈주의와 신다윈주의에서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각각의 가설은 채택될 수 없는 거짓증거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신의 생물학적 발견은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된 많은 증거들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기에 그 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자생물학의 중심사상-DNA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프랜시스 크릭은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 유전정보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모세포가 자신과 똑같은 2개의 딸세포로 분열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DNA를 똑같이 복제해서 그 생명의 청사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성립될 수 있다. DNA 속의 생명현상의 정보는 RNA로 전사되고 그것이 단백질로 합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과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효소, 전사인자, 수용체 같은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DNA, RNA, 단백질과 세포막이 한꺼번에 존재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없을 경우 생명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DNA는 세포핵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염색질의 형태로 흩어져 있다가 세포분열을 위해 자신의 DNA를 2배로 증폭한다. 그것을 두 개의 딸세포로 균등하게 나눠 갖기 위해 염색체라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사람은 22쌍의 상염색체(autosome)와 한 쌍의 성염색체(sex chromosome), 총 46개(23쌍)의 염색체를 가진다. 염색체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에서 각각 23개씩 받아서 23쌍을 가지게 되는데, 세포분열 과정의 실수로 염색체 중 하나가 한 쌍이 아닌 3개가 되면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대형영장류는 24쌍의 염색체를, 일반원숭이는 21쌍의 염색체를 가진다. 염색체의 개수가 다르고 염색체 속에서 유전자의 배

열이 다른 생명체는 공통조상을 가지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유전자 배열이 다르고 개수가 다른 개체의 교배에는 대립유전자가 하나뿐이거나 3개인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힘들다. 애초부터 서로 다른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

신다윈주의에서 주장하는 돌연변이는 DNA상의 염기서열(AGCT)이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상실되거나 추가되어 서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열 변경은 방사선이나 자외선을 쬔었을 경우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돌연변이가 생식세포에서 발생하면 유전질환이, 체세포에서 발생하면 암이 생길 수 있다. 다윈이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로 주장하는 갈라파고스 핀치새의 부리 모양 변화와 영국의 공장도시 맨체스터의 후추나방의 날개 색깔이 공해가 심해짐에 따라 짙어지는 현상은 반론을 견디지 못했다. 최근에는 핀치새와 후추나방의 환경에 따른 변화를 후성유전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쥐의 털에서 멜라닌 신호조절을 통제할 색깔을 노란색 혹은 진한 갈색이 되도록 결정하는 Agouti 유전자가 있다. DNA 메틸화를 조절하는 사료를 통해 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면 같은 유전자 서열을 가진 마우스가 노란색의 비만한 마우스 혹은 진한 갈색의 날씬한 마우스가 된다. 이들의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식이에 의해 털 색깔과 비만도가 달라지는 후성유전적 변화를 나타내

는데, 후추나방의 색깔도 동일한 원리로 조절될 수 있다. 이것은 신다윈주의가 주장하는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가 아니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대부분은 후성유전적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의학-생물학적 연구에서는 진화의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별로 언급할 필요도 없는 진화론적 기원과 연관된 해석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를 진화론 카르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중세 종교에 의해 지배당했던 과학이 영역주권을 회복한 것이 진화론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신학, 철학, 윤리학 등 형이상학에 대해 과학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진화론이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철학자 칼 포퍼의 주장처럼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주장이기 때문에 반론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고급 저널의 엄격한 반증 요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물론 과학 엘리트의 90% 이상이 진화론자이고 고급저널 심사위원들도 그 카르텔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논문 속에 진화론을 도입하는 것은 학문적 성공에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 지식을 통해 쟁취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과학자들의 영역 이기주의가 카르텔의 결속력 유지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묵상: 다수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스킨십 기준에 대한 진솔한 대화

“연애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스킨십을 하게 될수록 죄책감이 들고, 절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애에서 결혼까지 통상적인 기간이 1년 정도다. 그런데 연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결혼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면 다양한 관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깊어지는 스킨십 아닐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가지고 있었던 스킨십에 대한 신념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다. 스킨십을 두고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어쩌면 그 기준은 ‘신앙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양심이 찢림이 있으면 멈춰야 하고,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면 허용 가능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절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절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을 정할 수 있다. 절제의 선을 넘는다면 인간은 죄책감을 경험한다. 죄책감을 경험하면서까지 스킨십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무엇보다 연인 사이의 신뢰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절제되지 않는 스킨십에 대해 서로 충분히 대화하면 좋겠다. 특히 죄책감이 드는 감정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나눠보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도 나눠보면 좋겠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자신의 치부와 깊은 죄책감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회피하지 말고 나눠보자. 공감적이며 민감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하면서 관계를 발전할지 합의점을 찾아가 보면 좋겠다. 스킨십에 대해 서로가 합의된 선을 정해보고, 그 합의된 결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스킨십 기준에 대해 서로 진솔하게 나누고

결정하는 것은 두 사람의 약속이다. 서로가 정한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해 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스킨십으로 인한 죄책감을 극복하면서 친밀감과 신뢰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죄책감이 들면 함께 회개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연애가 길어지면서 절제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기를 바란다. 아픔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다. 아픔과 라헬은 7년 동안 연애 관계였다. 충분히 절제하면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 부부도 1년 6개월 연애 기간을 보내면서 성적인 유혹들이 있었지만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 기준을 떠올리며 결혼하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커플들 중에 상대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킨십을 넘어 성관계까지 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어차피 결혼할 것이니 관찮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

면서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이도 있다.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서도 안 되고, 죄가 합리화되어서도 안 된다. 성관계를 하지 않지만 나체인 상태에서 유사행위를 하는 것도 합리화된 죄의 모양이다.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양심과 죄책감을 넘어서 합리화된 스킨십의 죄의 모양을 버려야 한다. 또한 스킨십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대화

와 다양한 데이트를 통해 친밀감을 높여보자. 무엇보다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 성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사례를 모집합니다(hha0@onnuri.org).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장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았던 대표적인 인물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겠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은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그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지역이 에베소와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이 두 도시에서 에너지를 퍼부었습니다.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의 모형을 만드어서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와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호응을 얻자 바울 일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겪은 사도 바울의 고난은 복잡합니다. 에베소에서의 고난은 물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복음사역에 반대하는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고난은 바울에 대한 비판, 거절, 공격, 대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고린도교회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매우 큰 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개 육체적인 공격보다 충격적이고 힘든 것이 심리적인 공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방문해서 고린도교회가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내적인 갈등과 고통,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의 복음이 발견되고, 바울이 어떻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그가 고린도교회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고전 5:9).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문제 있는 성도에 대한 올바른 처리와 경고와 권면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름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고전 1:11).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고전 7:1).

바울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게바과, 아볼로과, 그리스도와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권면했던 성도들을 처리하기는커녕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됩니다. 주후 54년 초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해 듣고 또 질문받은 것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한 응답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매우 긴급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의 무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침묵하며 고린도교회를 떠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마치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2:4).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계속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소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지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고후 2:12-13).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지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고후 7:5-6).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고통 속에서 쓴 세 번째 편지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로 응답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주후 55년에서 56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고후 2:6-7).

바울이 그 성도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려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진정성 있는 사도인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격려하다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라는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이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의지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넘치는 위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 내게 된 것입니다”(3-6절).

바울은 그 어떤 사도나 성도보다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자비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세상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의 삶을 선택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13면에 계속〉

공동체 맞춤형도집회

노점상인, 30년 지기 후배에게 복음을

한강, 이촌, 영등포구로공동체 맞춤형도집회 은혜와 간증

한강, 이촌, 영등포구로공동체가 실시한 맞춤형도집회의 열매가 풍성하다. 전도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눈물겨운 간증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강공동체는 지난해 12월 12일(토) 유튜브와 줌(Zoom), 이촌공동체는 12월 12일(토) 유튜브 실시간, 영등포구로공동체는 1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전도대상자 맞춤형영상(USB)을 제작해서 전달했다. 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 쏟아진 은혜와 간증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강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서 결신한 위광선 형제가 세례를 받고 있다.

문쌍찬 장로(한강공동체)는 공동체 맞춤형도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딱 이 사람이 떠올랐다. 문쌍찬 장로는 운영 중인 사업장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위광선 형제(62세)가 그 주인공이다. 문쌍찬 장로는 위광선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제가 일하는 매장 앞에서 과일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보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3개월 동안이나요. 너무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너무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장사를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인생의 부침과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분께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공동체에서 맞춤형도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쌍찬 장로의 기도가 응답됐다. 위광선 형제는 초대할 거절하지 않았고, 복음도 거부하지 않았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 맞춤형도집회를 통해서 1년 동안 마음에 품어온 위광선 형제님을 전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문쌍찬 장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광선 형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생각이다.

“저는 귀한 영혼들을 볼때마다 늘 ‘선생님은 주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최고의 행복을 누리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번 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서 결신한 위광선 형제님도 정말 귀한 영혼입니

다. 형제님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최재은 순장(이촌공동체)은 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 손윗동서(처형 남편) 가족을 초청했다. 손윗동서는 최재은 순장과 나이가 스무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어려운 분이다.

“형님이라 나이 차가 많고, 직업도, 사는 곳이 달라서 공감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형님께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싶다’면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이려 저희 부부도 더는 전도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평소에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 없는 형님께 복음을 전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형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지병(당뇨병)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항암치료만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형님께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완강하던 분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드리는데 형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형님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겠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영접기도에서 형님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재은 순장은 공동체 맞춤형도집회 준비팀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그리고 그 사연이 담긴 공동체 맞춤형도집회 영상을 형님께 보

여드렸다.

“형님이 자기 사연이 소개된 것을 부끄러워하시기는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마음이 편해졌다면 병원에 출근하게 다니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도 있었다. 조카(형님 딸)가 복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조카가 ‘이모부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지 몰랐다’면서 크게 감동하더라고요. 형님께 보여드린 영상을 조카네도 같이 봤는데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다음 목표는 조카 부부입니다(웃음).”

정광렬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는 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 30년 지기 후배를 초청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적에 같이 일했던 후배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마침 이 친구도 같이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연락이 끊어지지 않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제해서 그런지 후배에 대한 정광렬 장로의 마음이 애뜻하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 아내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천국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정광렬 장로는 후배에게 교회와 공동체 소식을 수시로 알리면서 후배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장로합창단 공연에도 초대하고, 해외 아웃리치나 공동체에서 하는 봉사도 알려줬다. 그때마다 후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멋지게 산다”고 말했다. 그 후배를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저는 이번 공동체 맞춤형도집회가 후배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전도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서 USB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그 영상을 전도대상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후배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기도해온 후배를 전도할 생각에 부른 정광렬 장로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 후배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자꾸 만남을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마음이 힘

듭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호전되어 후배에게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후배 가족이 예수 믿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며느리 영미입니다.

2년 전, 치매를 앓으시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씀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께 아버님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참 성실하고 일편단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님이십니다.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93세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자식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드실 아버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꼭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김영미 성도(이촌공동체)

“경숙아 사랑해”

사랑하는 내 친구 경숙아. 이렇게 인사를 하려니 참 쑥스럽구나. 너를 영등포구로공동체 맞춤형도집회에 초대하게 되어 너무 좋고 반가웠어. 네가 여러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게 늘 안타까웠어. 네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노후를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좋겠어.

나는 너를 생각하면 늘 중학교 때 그 모습이 떠올라. 너무 순수하고 예쁜 느낌이야. 네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지?”하고 자랑하던 너를 보면서 나는 네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그 모습으로 기억할 것 같아. 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로 인해서 네 아들딸이, 사위와 며느리가, 신랑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할게. 경숙아 사랑해.

/ 하영 권사(영등포구로공동체)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사랑이 전달됐다!”

대학청년부 사랑애틀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종료
불우 이웃, 차상위계층, 지역 교회, 기관 지원



SNS청년부 청년들이 온누리M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우 이웃, 차상위계층, 지역 교회, 기관을 도왔다.

대학청년부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사역은 ‘사랑애틀눔’과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대표적인

겨울사역이다. 사랑애틀눔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소외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지역 교회와 군부대, 병원, 쪽방촌 등지를 찾아가 성탄절 특순, 식사 나눔, 어린이 사역 등으로 예수 탄생의 기쁨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사랑애틀눔은 지난해 12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 동안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서울 시내 불우 이웃 및 차상위계층에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애틀눔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했다.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던 예년과 달리 기관으로 물품을 보내거나 최소 인원만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와 사직주민센터, J4U청년부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는 등대교회를 섬겼다.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 허브대학부는 신양장로교회와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통해 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공동체별로 실시했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70개 팀이 국내 53개 지역 교회와 기관을 도왔다.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 선물 배송, 온라인 성탄예배, 특순 영상 제작 등을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비대면으로 선물 배송을 진행했다. 여호수아 청년부는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23개 지역 교회와 기관, J4U청년부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10개 지역 교회와 기관, W청년부는 인천, 강원도, 충청도 3개 지역 교회와 기관, 요셉청년부는 서울, 강원도, 경기도 4개 지역 교회와 기관, CH PLUS청년부는 서울, 경기도 2개 지역 교회와 기관, 길청년부는 서울, 경기도 2개 지역 교회와 기관, 갈렙청년부는 전라도 지역 교회, SNS청년부는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7개 지역 교회와 기관을 섬겼다. 허브대학부는 인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13개 지역 교회, 하늘대학부는 강원도, 경상도 3개 지역 교회, POLE2대학부는 경기도 지역 교회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정민영 형제(CH PLUS청년부)는 “사랑애틀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도했다”고 간증했고, 김효준 자매(SNS청년부)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하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났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 보내는 편지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매년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12월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사랑애틀눔’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침 일찍부터 W청년부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저희 학교로 찾아오십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면 콧날이 시큰해지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매년 사랑애틀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명단을 취합하고, 물품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선물을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사랑의 선물이 도착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부여해주고 싶어서 꿈을 안고 한국행을 선택한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 이혼하거나 사별한 결손가정,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에 처한 가정,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는 가정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사랑애틀눔 물품이 전달되면 담임선생님들의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선물을 받고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사진과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애틀눔 선물이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타국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도 저희 아이들 가정에 어김없이 사랑애틀눔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랑애틀눔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진 그들의 삶에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대표해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애틀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한은경 학생실장(재한몽골학교)

어느 청년의 고백

가장 귀한 선물 같은 존재로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도무지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이런 때에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다. 아웃리치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비난 받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염없이 기도하던 어느 날 오래전 내가 지도했던 제자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욱 갈급해졌다. 소중한 영혼들을 데는 잃을 수 없다고 기도하며 울고 있을 때 우연히 온누리M센터 사역자님을 만났다. 그 사역자님이 내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섬기는 온누리M센터 사역을 소개해주셨다. 사역자님이 코로나19 시대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면서 나에게 이주인 청년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셨다. 그들이 외롭고 우울해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불꽃이 튀었다.

“할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예수님은 이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막연함 속에서 온

누리M센터 섬김을 시작했다. 그 섬김을 이어가던 중에 SNS청년부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역지가 온누리M센터로 정해졌다. 안산, 김포, 남양주M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축복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섬김은 버려진 박스를 다시 포장하고, 리본을 묶어 예쁜 선물 상자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었다. 포장된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나, 하나님을 모르던 친구들, 낯선 타국에서 우울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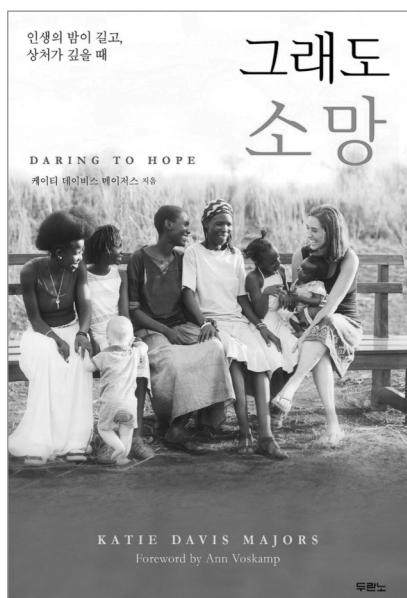
우리는 앞날이 불안하고, 나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김효준 자매(SNS청년부)



책 읽어주는 목사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그래도 소망〉
케이트 데이비스 메이저스 저 |
두란노 | 15,000원

한국의 절기 중에 동지가 있다. 이날은 일년 중에 해가 가장 늦게 뜨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1월 초가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1월 10일인 곳도 있다고 한다.

2020년은 이맘때 긴 밤처럼 너무 짙은 어둠과 고난이 세상을 덮었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긴 밤은 지속되고 있다.

신년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한 책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인생의 밤이 길고, 상처가 깊을 때’라는 문구가 너무나 강렬하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꺼내 보니 이 책은 12월 주일예배 영상에서 봤던 케이트 데이비스가 쓴 두 번째 책이었다. 그녀가 첫 번째 책에 기록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한 승리가 그녀의 두 번째 책에 더욱 풍성하게 담겨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을 펼쳤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의 문장으로 이 책을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
저자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두 번째 시기를 시작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뜻밖의 고난과 이별,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해도 마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상실들이 그녀의 삶을 무너뜨렸다. 책의 끝까지 고난과 상실의 이야기일 것만 같아 마음이 어려워 책을 덮으려던 찰나, 다음 페이지의 문구가 애써 외면하려던 내 마음의 시선을 책에 집중하게 했다.

“소망은 세상의 조롱을 무릅쓰고 그저 그분을 만져만 보기 위해 의심과 절망을 뚫고 가는 것이다.”

도저히 끝이 안 보이고 펼쳐낼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삶을 물들일 때 저자는 손을 뻗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실낱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자는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처, 오랜 시간 변함없는 현실로 인한 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간구의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에 따른 조롱을 무릅쓰고 세상의 시선을 뚫고 소망 가운데 주께 나아가 손을 뻗었다. 그러자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혈루병 여인의 손을 뻗는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분명한 믿음과 이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한다. 이 믿음과 소망이 그녀를 치유하고, 살렸으며,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했다.

저자는 한 가지를 더 말한다. 혈루병 여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소망은 비바람을 견뎌낸 깜빡거리는 불빛이다. 그리고 이 불빛은 깜빡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완전히 꺼지지 않게 지켜주실 거라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이 불빛과 같은 소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생명을 다시 누군가에게 불어넣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고백한다.

“이 인생은 소망으로 인해 나의 것이 아닌 주가 만들어 가시는 기적이 되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밤과 같던 인생이 기적, 그 자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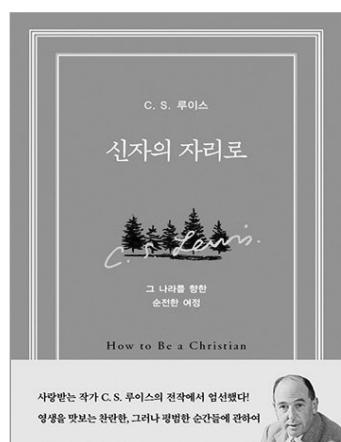
저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적고 책을 마친다. ‘소망을 잃지 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너를 만나 주마.’ 필자는 온누리교회 표어로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윤준석 목사
(열린새신자예배)

두란노 신간

믿음의 실천



〈신자의 자리로〉
C.S. 루이스 저 |
두란노 | 11,000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통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엿볼 수 있다. C.S. 루이스의 변증의 뿌리는 믿음을 실천한 삶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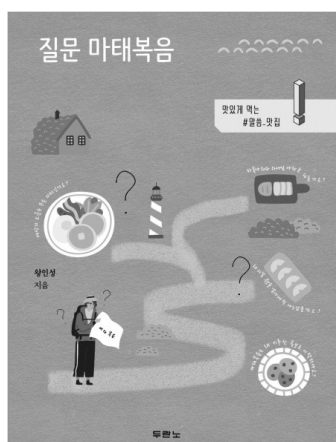
〈신자의 자리〉는 국내에 소개된 글과 아직 소개되지 않은 C.S. 루이

스의 글 중에서 믿음, 믿음의 실천 등을 주제로 선별해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믿음을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준다. 〈신자의 자리〉는 ‘신앙의 긴 여정, 어디까지 왔는가?’, ‘교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의 현장에서 ‘신자다운 선택’을 고민하는가?’ 등 시대를 꿰뚫는 14가지 주제와 그에 대한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믿음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본향에 가는 것이 선행 덕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인지를 두고 기독교계에 갑론을박이 자주 있었다. 실제로 성경은 신기하게 양쪽을 한 말씀으로 묶어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 같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 2:12-13).

바로 그 질문에 답해주는 책



〈질문 마태복음〉
왕인성 저 |
두란노 | 16,000원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신학적, 시대적, 환경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바로 그 질문에 답해주는 책이 출간되었다. 〈질문 마태복음〉이다. 저자는 17년 동안 부산 장신대 교수로 사역 중인 왕인성 교수다.

저자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에 답해준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 전인데 왜 남편이라고 불렀나요?”,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의 불평은 부당한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름 좀 나누어 주면 어디 덧나나요?” 등 마태복음에서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뽑아서 균형 잡힌 신학으로 풀어 주면서 바른 성경 읽기로 인도한다.

각 장 끝에는 ‘영양만점 메시지’ 코너가 있다. 해당 장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저자의 묵상, 핵심 메시지들을 적어서 말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 묵상집, 성경공부의 기본 교재, 신학교 수업 교재, 목회자의 설교 준비가이드라인 등 활용도가 높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역새 동산’

기우는 빛살이 온통
역새 동산에 쏟아진다
시간의 흐름을 타고
역새 꽃 춤이 한창이다

바람아 불 테면 불어라
눈보라야 칠 테면 쳐라
네가 끝나면 내 차례가 오리
납작 엎드려 참고 버티지
부서진다고 어찌 끝이라
날려 가도 어딘가에 가 살지

낙조에 잠긴 역새 동산에서
장려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
처음엔 고별의 가락이더니
예찬의 선율로 바다에 잠긴다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나는 지난해 2월 온누리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시작했다. 이전 교회에서의 직분을 잊고 첫 마음과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계획에서 벗어났다.

새가족반 8주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잘 마치고 7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교회에 빨리 정착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망이 컸다. 다행히 일대일제자 양육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지난 6월 7일 '가스펠 프로젝트'를 주제로 시작된 담임목사님의 주일설교 말씀을 듣고 가정예배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다. 매주 노히데 목사님이 울먹이면서 "가정이 교회입니다"라고 강조하셔서 그 소망이 더욱 커졌다. '가정예배를 드리리라'고 호기롭게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샀는데 단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 신앙을 어떻게든 세우고 싶은 간절함에 아이스쿨을 찾던 중에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 과정을 발견하게 됐다.

내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상반기에 했던 온라인 OBC

행위보다 존재, 믿음의 크기보다 대상



오연성 성도(신용산공동체)가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듣고 있다.

가스펠 프로젝트1: 위대한 복음' 과정을 자녀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말씀을 잘 배워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다. 둘째, 아들이 멀리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박성은 목사님의 강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는 비록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신다는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숨기지 말고 아뢰고 기다리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신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눌 시간이 너무 좋았다. 처음에는 나눌 시간이 두렵고 떨렸다. 새가족이기에 비대면 나눔이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한 주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잘 이끌어주시는 조장님, 과제를 깊이 묵상한 순장님과 조원들 덕분에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었다. 그분들 덕분에 두렵고 떨리던 나눔 시간을 도리어 기다리게 되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스펠 프로젝트 과정을 들으면서 존재와 믿음에 대해 묵상했다. 그동안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크기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자유함이 없었다. 행위보다는 존재,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있다. 신앙이 금방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노력하려고 한다.

조금씩이라도 가정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가스펠 프로젝트 중고등부용 교재도 구입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나라>(중고등학생용 큐티지)를 온 가족이 읽으며 큐티를 시작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층 더 성장한 믿음의 가정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 오연성 성도(신용산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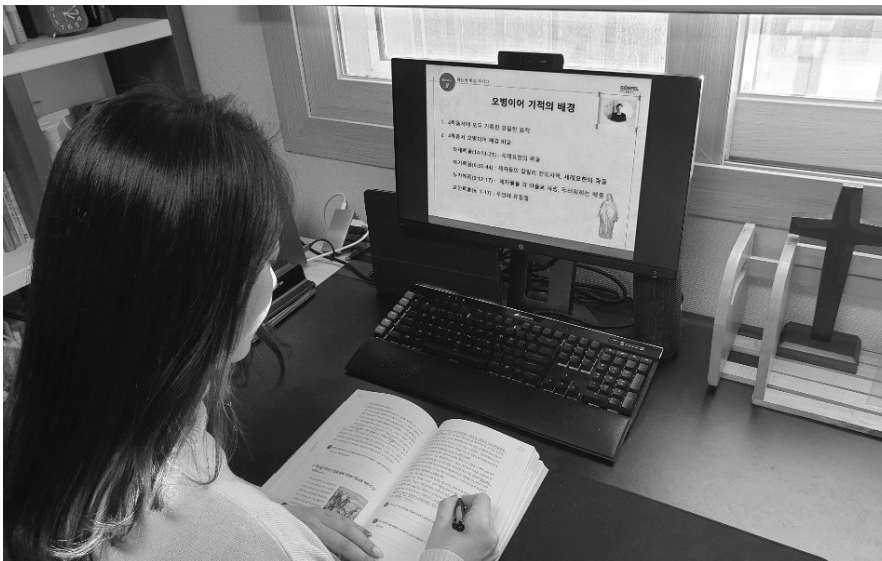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영적 내비게이션 같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갈 즈음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을 만났다.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는 나에게 영적 내비게이션 같았다. 남편과 강의를 함께 듣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소통창구가 되어줄 것 같았고, 공동체 성도들과도 하나 되는 느낌이었다. 교재의 내용만으로도 큰 감동이었고, 신원석 목사님의 강의는 정말 은혜였다. 목사님께서 강의를 통해 풀어주시는 천국의 비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주 한 주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첫 강의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나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내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진실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옥토의 마음 밭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강의가 내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주었다.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 안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주위에 전도가 되지 않는 영혼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토양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



최향목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는 "말씀 안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도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씨 뿌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온전히 전할 수 있다.

'돌아온 탕자' 강의도 새로웠다. 그동안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췄는데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큰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큰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램브란트의 그림에서 탕자가 너털너털해진 듯

을 입고 아버지에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모습 또한 그러했으리라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값없이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주 비유와 기적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 비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제껏 나태함에 빠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나에게 멈춤을 주셨다. 그리고 그 빈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다. 가스펠 프로젝트도 나에게 깨우침을 주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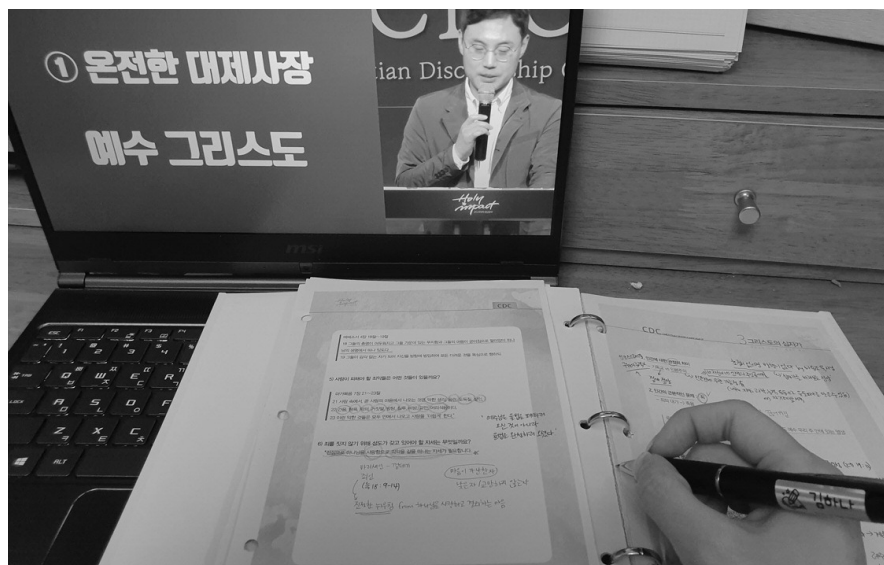
/ 최향목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CDC 수료 간증

나는 지난 2019년 바이블아카데미 CDC(이하 CDC) 강의를 등록했다가 중도 포기한 경험에 있다. CDC 과제로 큐티 30회와 새벽기도회 20회가 있었는데, 수강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잘 배분하면 수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자신만만했었다. 하지만 막상 퇴근하고 교회에 가서 강의에 출석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았다. 2020년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CDC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나는 그때의 실패와 나타했던 모습이 떠올라 온라인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호기롭게 신청했던 2019년과 달리 2020년에는 신청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여쭙보았다. 하나님은 링크하시듯 “이제부터 우리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 보자”라는 강력한 응원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다. 과제 완수와 경건생활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말씀해주시고, 교제하고 싶어서 초대하셨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강의보고서, 새벽기도회, 큐티 일기 등의 과제가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CDC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일상의 죄에 대한 영적 예민함과 회개, 십자가 능력을 회복한 것이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달리 ‘나는 연약한 사람이



김하나 자매(여호수아청년부)가 바이블아카데미 CDC 강의를 듣고 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하며 죄와 교만에 빠져있었다.

CDC 수업 8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매일 큐티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심으로 회개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아

니라 지금 내게 직접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섭취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개인적인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맛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배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과 관점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변화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묻고,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졌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작은 실천도 도모했다. 연락이 뜬 순원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말씀 카드나 CGNTV SOON 동영상 공유하기 등 그때그때 주신 마음을 매일 실천했다. 또 CDC 과정을 통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주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하게 되었다.

아직도 상황과 환경,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갈 6:14)라는 바울의 기쁨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완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회개하고 앞도될 때 언제나 이미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듬뿍 누리고 있다. 내가 만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청년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 김하나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코로나19, '전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은 2019년 9월 “국내 외국인들을 전도하면 좋겠다”는 김숙경 멘토님의 권면으로 시작됐다. 해외 아웃리치와 더불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형제자매들이 모였다. 전도에 적합한 전도도구가 필요했고, 전도도구로 복음 팔찌를 선택했다. 기존의 복음팔찌 전도전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우리말과 영어로 전도전문을 암기하고 그해 12월 24일에는 용산역 브릿지 거리찬양에 동참하고, 25일에는 이태원에서 복음을 전했다.

2020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라 팀원들이 많이 모일까 우려가 많았는데 20여 명의 형제자매가 모였다. 그렇게 모인 형제자매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전도가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원들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지인, 직장동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모이지 못했지만 팀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다. Zoom으로 모여서 두세 명씩 짝을 이루고 상황을 만들어 전도 연습을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1천여 명의 이웃들에게 과자와 전도지를 나눠줬다.

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수고해주신 조장님들과 기도를 아끼지 않은 중보기도팀장님께 감사하다.

실제 전도를 위한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면전도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렇게 연말이 다가왔다. 아무것

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김숙경 멘토님께서 “과자를 후원해줄테니 전도지를 붙여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고 제안하셨다.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원 몇 명이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에 상인들과 병원 종사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웃에게 과자와 전도지를 나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과자와 전도지

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팀원 몇 명은 용산역 광장 인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전도지와 과자를 나눠드렸다. 마음껏 가져가시라고 테이블에 과자와 전도지를 올려두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시민들께 하나씩 나눠드렸더니 그제야 과자와 전도지를 받아갔다. 전도가 끝나고 집계해봤더니 이를 동안 약 1천 명의 시민들께 과자와 전도지를 나눠드렸다. 어느 때보다 삭막했던 연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기를 바란다.

전도지를 나눌 때 처음에는 거절을 많이 당했다. 거절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과자와 전도지를 받아 주실 때는 기쁨이 배가 됐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운 마음이 줄어들고, 기쁨과 감사함이 더욱 커졌다. 과자와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올해 S브릿지공동체 영어전도팀은 S브릿지공동체 전도팀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코로나19로 당장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한다.

/ 송용자 팀장(S브릿지공동체)

온누리 대학청년 비전집회 ‘New Hope’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저녁 8시 온라인

온누리 대학청년 비전집회 ‘New Hope’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주제로 막 올랐다. 1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평일 저녁 8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Zoom(줌)에서 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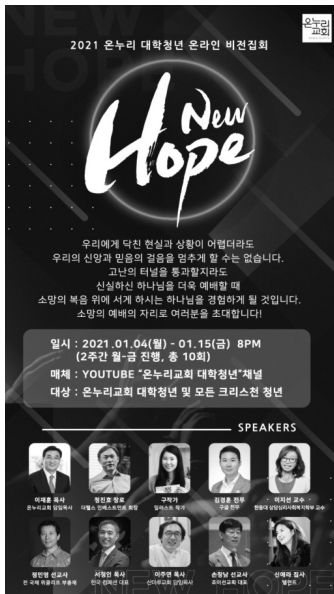
온누리 대학청년 비전집회 ‘New Hope’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정진호 장로(더웬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김경훈 전무(구글),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정민영 선교사(전 위

클리프 부총재), 구경선 작가(책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자), 손창남 선교사(조이선교회 대표), 서정인 목사(한국 컴패션 대표),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배우 신애라 집사 등 10명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비전집회 ‘New Hope’는 온누리교회 소속 대학청년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759

/ 홍하영 기자 hhao@onnuri.org



두란노서점 온라인 북스토어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에서는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 캠페인 추천 도서, 〈생명의 삶〉, 하용조 목사 저서, 이재훈 목사 저서, 공동체 양육 필독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말씀 묵상 캘린더도 판매한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 또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에서 도서를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문의: 02-796-2310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사역본부가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 및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https://forms.gle/khihe9wSjKyDCHvRp8) 또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는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새가족 정보는 차세대 전임교역자가 확인하고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교역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을 한다. 차세대 교사는 nCare에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반 과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 배정 등을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21



2021년 목회사관학교

1월 12일~2월 23일 온라인

2021년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1월 12일(화)부터 2월 23일(화)까지 7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온라인(Zoom)으로 개최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 주제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이다. 2021년 목회사관학교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 396명(전임 216명, 파트 180명)이 참여한다.

올해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의 미래목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양성’,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미디어 콘텐츠 활용방안’, ‘코로나 시대의 목양’, ‘미래사회 변화 대처’, ‘선교적 양성’ 등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R. T. 켈달 목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케빈 목사, 박세업 선교사, 이인호 목사, 유기성 목사 등이 강의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온두라스 허리케인 긴급구호

세이비따마을에 30㎡ 주택 12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남아메리카 온두라스 세이비따 마을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허리케인 ETA(바람의 세기 250km/h 이상)에 세이비따 마을은 주택 12가구가 전부 강물에 휩쓸렸다. 온두라스 전역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세이비따 마을 주민들에게 30㎡ 주택 12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3가구를 시작으로 NGO 더멋진세상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강민호 선교사(온두라스)는 “다른 집들도 대부분 다시 지어야 한다”면서 “온두라스가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화성M센터, 무슬림 수술지원

키르기스스탄 출신 딜셋벡 형제 탈장수술

화성M센터가 정읍에서 생활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무슬림 딜셋벡 형제의 탈장수술을 지원했다. 화성M센터는 딜셋벡 형제의 수술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보호자를 자처했다. 이번 탈장수술 지원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한 딜셋벡 형제에게 화성M센터가 손을 내밀며 이루어졌다.

딜셋벡 형제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화성M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는 “수술비가 부족했는데 의료진들의 모금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면서 “올해도 더 많은 무슬림들을 섬기면서 전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온라인 시무예배

지난 1월 5일(화)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2021년 사역을 힘차게 시작했다. 올해 시무예배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Zoom)으로 드렸다.

2021년 온라인 시무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두란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Acts29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온누리M미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에셀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CGNTV) 직원

910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소서’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목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며,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을 통해 사역에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긋시아 간사(디자인실)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해를 소망의 복음으로 털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올해 사역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021년 예수제자학교 5개 반 모집

2021년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 개강을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수제자학교는 3월부터 9월까지 총 22주 동안 진행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화, 목 오전 10시~오후 3시, 여성), 서빙고, 양재, 수원 저녁반(목 오후 7시, 토 오후 2시, 남녀) 총 5개 반이 개강한다. 주간반 40명, 저녁반 50명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 2월 25일(목), 양재 저녁반 2월 27일(토), 서빙고, 수원 저녁반 3

월 6일(토) 개강한다. 수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소속 교회 교역자 확인 필)와 추천서(교역자, 교사, 지인 등이 직접 작성) 양식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거나 온라인 폼(https://forms.gle/vsGTc5hTKV9Nbecj6)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빙고 주간	010-9092-6036	양재 주간	010-9320-4738
서빙고 저녁	010-8201-8468	양재 저녁	010-3773-2304
수원 저녁	010-7702-0419	본부	02-3215-3625, 32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위한 화상 포럼

1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개최예정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위한 화상 포럼’을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위한 화상 포럼은 구글 Meet를 이용해서 ‘현지인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소그룹 훈련(가정중심 사역)’, ‘온라인디지털업무 일상화’, ‘네트워크, 협력사역(플랫폼)’, ‘긴급구호, 개발, 회복사역’, ‘난민(이주민)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대상이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위한 화상 포럼은 오는 1월 27일(수) ‘현지인주도로 전환(이양 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가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된다. 성경적 부모교실 세미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보기’, ‘자녀에게 18계명’, ‘자녀의 마음 듣기’, ‘떠나보내기’ 등을 주제로 이기복 교수(전 한

동대 교수, 온누리교회 협력목사)가 강의한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 예비 부모,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1월 25일까지 접수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 세 이레 기도회 참가자 간증



/ 김세은 성도(분당B공동체)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온누리교회는 다양한 예배 형식과 양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공급받았던 예배 및 집회, 공동체 모임을 대면으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까 막연한 기다림에 자꾸 지쳐만 갔다. 성도들과 함께 묵 놓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예배당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더해갔다. 삶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때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이레 기도회(이하 세 이레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음이 설렘. 쌍방향 온라인으로 새벽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에 더욱 관심이 갔다. 의지가 약한 나에게 도전이 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드리고픈 마음을 품고 Zoom으로 참가했다.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할수록 Zoom을 통한 쌍방향 온라인 예배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자세나 용모를 가다듬고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끔 비추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생

각에 더욱 힘이 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는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 울컥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그마한 열심을 기뻐 받으셨는지 세 이레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셨다. 이전에 받았던 방언기도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내 입술을 움직이셔서 우리말로 또렷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알았지?”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 귀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몸과 영이 떨렸다. 참 평안과 소망이 가득 채워졌다. 세 이레 기도회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믿음이 없던 내게 산 소망이 되었다. 이제 어디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문제를 넘어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 온라인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장채희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와이무슬림 강의를 수강했던 지난 6주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해야 할 일이 왜 이리 많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찾아왔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내게는 무슬림 올케가 있다. 올케와 결혼한 친오빠 역시 이슬람 교리를 받아들였다. 올케가 우리 가족이 될 때 친정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 내가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며 아픈 시간을 견뎌야 했다. 영적으로 외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슬림 올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가정에 무슬림이 들어온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매일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슬람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슬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끝에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예수님

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하나님은 아빠의 파킨슨병과 기적 같았던 눈 수술, 척추골절 수술을 통해 아빠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셨다.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제 아빠는 나의 동역자가 되셨다. 무슬림인 오빠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 부모님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나에게도 오빠 부부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

이번 와이무슬림 과정을 통해 올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내가 알지 못했던 무슬림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조금씩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젠가 오빠 부를 예수님께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 오빠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눈물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오빠 부부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빠 부부를 위해 기도한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오빠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현혜련 집사(마포공동체)

오늘도 나는 전도를 준비한다

‘크리스천이라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그렇지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온누리전도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그 방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었다. 전도전문은 쉬우면서도 전달할 내용이 정확하다. 또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년 전 전도폭발훈련을 받을 때 나의 첫 전도대상자는 친정어머니였다.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신시켜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됐다. 아버지는 2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오빠와의 관계도 회복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천국에 입성하셨다.

나는 열일곱 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가족구원이 나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 내 나이 오십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잠시 전도의 사명을 잊

고 살았다. 순장사역에 집중하느라 전도의 사명을 뒤로 미뤄두었다. 온누리전도학교에 등록하고 다시 전도의 불을 붙이게 됐다.

이번 전도학교에서의 목표 역시 가족구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와서 이제껏 홀로 믿음생활을 하면서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제시해준 전도전문과 10개의 성경 구절이 내게 담대함을 주었다. 계속 말씀이 귀가에서 메아리치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이 생각보다 일찍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내 전도대상자가 되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 거절당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며 머뭇거렸던 나에게 하나님은 담대함과 침착함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다음은 남편이다. 내 기도에도 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주실지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전도를 준비한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조소연 성도(서빙고 꿈이자라는땅 교사)

낮설기만 했던 경험이 감사로 변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전도폭발훈련의 첫 질문부터 나를 돌아보게 했다. 오랫동안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전도한 번 안 해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늘 ‘삶으로 전도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전도만 하려고 하면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입을 떼려고 할 때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전도를 피했는데 공동체 선생님이 전도폭발훈련을 받아볼 것을 계속 권유하셨다.

입에 붙지 않는 복음제시문을 달달 외우고 또 외웠다. 생전 처음 노방전도라는 것을 해보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한 영혼에게 영생의 선물을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예전에 들었던 이영표 선수의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진리를 아는 자의 침묵은 죄”라는 간증을 떠올리며 열심히 전도훈련에 임했다.

배포가 커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소심하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물론 나는 한 학기 훈련만으로는 어

림없다. 여전히 낯이 붉어지고 어색하기 짝이 없고 두렵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머리로는 전도 해보는 것보다 직접 전도를 했더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 일단 갈 수밖에 없다. 이번 학기에는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마침 복음이 필요한 때에 그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작 내가 마음에 두고 권유했던 다른 친구는 복음 듣기를 거절했는데 우연히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전도폭발훈련은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해주신 감사한 프로그램이다. 일단 시작하면 정말 자상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가르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 미리 교육받은 훈련자님들은 천로역정에 나오는 안내자들처럼 누구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주고 밀어준다.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도움과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다. 주저하지 말고 일단 등록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다름과 부흥

은혜의 돌아봄



박일환 장로
(양천공동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에 참가하면서 ‘다니엘이 누구인지’가 가장 궁금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였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패역,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 왕의 칙령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용사였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를 구한 사건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된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간담을 녹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2의 다니엘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닐까? 내가 먹을 것, 나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민족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 죽을 상황에서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킬 지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였다. 이 부름 앞에 우리 모두는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위기를 배가한 아주 큰 증폭기일 뿐이다.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지고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진리는 신념이나 이념으로, 도덕과 윤리는 양심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바꿈질한다. 법은 공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거짓 정의로 대체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오직 교회가 세상을 구할 유일한 대안이다. 세 이레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의 선포식이었다.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했던 설문 중에서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라는 질문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다름’을 잃고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름’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다. 반면 세상은 우리에게 ‘나름’이라는 비교와 경쟁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변질되고 거룩한 다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세 이레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고 진정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그해 표어를 기도하며 정한다.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흥(Revival)’이다. 부흥의 어원은 라틴어 ‘re-=again’와 ‘vivere=live’를 합한 것으로 ‘Live again’을 의미한다. 결국 부흥은 예수님을 만나 선물로 받는 새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다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그분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2021년, 바로 그 부흥을 꿈꾸며 다니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지난 학기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 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장대한 분량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 들었다. 나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안디옥으로 오기까지 10여 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로마서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 썼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교리적인 삶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에 새기며 사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니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이 새롭게 보였다. 특히 16장에 등장하는 각 사람과 그들의 이름을 접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15장에서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로마서를 마무리했다. 왜 그랬을까. 지난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생각났다. 동역자라는 거창한 이름보다 어려운 시절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감사와 격려로 가슴이 뭉클해진다. 일대일사역팀의 모든 훌륭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일대일사역이 지속되도록 기도의 문과 5주차를 지키고 계신 이근우, 박영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순식구들에게도 감사하다. 배문 장로님, 박옥남 권사님, 이종국, 이경숙, 김선혜 집사님께 감사하다. 어렵게 온

라인으로 순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순식구들이다. 큐티방 식구들도 감사하다. 홀로 세 아이와 작은 치킨집을 꾸려가고 있는 이마숙 집사님, 계약직 특수학교 교사로서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사는 홍성미 집사님, 멀리 이사했지만 온라인으로 다시 보게 된 서가영 자매님, 큐티로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 박소희 집사님, 어린 조카를 맡아 키우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박은주 집사님에게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거야”라고 격려를 보낸다. 멘토링팀의 김재영, 황기중, 이정민, 황영택, 김미경, 조은숙, 김용곤, 방지영, 이해연 멘토에게도 감사하다. 팀이 하나로 연합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새 노래를 쓰자고 기도했다.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매달 손편지를 쓰고 온라인 월례회로 멘토모임을 이어가는 중 이것이 코로나 이전 사역과 다른 새 노래의 사역인 것이 깨달아지니 감사하다. 아들 이한길, 며느리 서정윤에게도 감사하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써 예배를 지키는 차세대 새 가정이다. 그리고 두 달 후면 34년 동안 근무한 일터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우리 순의 순장이고 일대일 사역의 동역자이며 내 삶의 동반자인 사랑하는 남편 이의장 집사에게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감사를 전한다. 귀한 분들의 이름을 모두 부를 수 없지만, 매일 각자 삶의 터전을 정직하게 지키며 사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했을 것 같다. 은혜로운 돌아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 바울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로마서 16장은 감동입니다!”

신앙에세이



백인규 목사
(Point5공동체)

어릴 때 즐겨 읽던 책 종류가 있었다. <Choose Your Own Adventure> 시리즈라는 책이다. ‘당신만의 모험을 선택하세요’라는 뜻으로, 독자가 자기 운명을 선택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옵션 A와 옵션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옵션 A를 선택할 경우 책이 지정하는 페이지로 간다. 옵션 B를 선택하면 독자선택에 의해 줄거리가 바뀐다. <Choose Your Own Adventure> 책의 매력은 독자가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기로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한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

다. 우리는 절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눅 9:23).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먼저 십자가의 도를 걷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다.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나 혹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순종을 잘한다. 그러나 본인이 내려놓지 못하는 곳에서는 순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현금생활은 잘하지만 연애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터치하는 것을 싫어한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전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적이 있었다. 인생의 큰 결단으로 인해 한번 큰 십자가를 지면 앞으로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라고 착각했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세상을 버리고 목회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나의 최후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삶의 현장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잠시 스쳐지나가는 세속적인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

라보다 소중한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거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한심한 피조물인지,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 하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어서 뒷골목이나 배회하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간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더 소중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기도회

✠ 12월 31일(목)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에베소서 2:14~18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앞부분(1~10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로 시작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뒷부분(11절 이하)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차별과 편견(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기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더는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차별하고, 나뉘고, 다투는 시대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더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나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가까워졌습니다. 더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시기 때문입니다(14절). 예수께서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막혀있는 담을 예수께서 헐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벼락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담이 ‘울법’입니다(15절). 울법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울법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울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열어주신 선물이지만, 울법의 말씀조차 죄인 된 우리에게 의해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고 위대한 복음을 편견과 특권의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울법을 완전케 하셔서 울법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둘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15절)라는 말씀에서 ‘지어’라는 표현은 ‘창조하다’는 의미입니다.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는 거듭남을 통해 담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한 새 사람이 성도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평화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위해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몸으로 무너뜨려놓은 담을 유대인들처럼 특권의식과 배타성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체질이 달라짐으로써 우리의 모양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는 복된 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일(금)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19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세 이레 기도회의 주제이자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기력이 쇠하여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태운 배가 호수 한 가운데 이르렀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배가 방향을 잃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파도를 만나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막 6:48).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풍랑을 만나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닙니다. 곧 사라질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두 번째 마음은 ‘강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고, 강건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죄의 찌꺼기와 죄의 습관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기하고 싶고, 낙심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 1월 2일(토)

여호와께 봄비를 구하라

스가랴 10:1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생명력을 잃어버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두 개의 우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몇 달 동안 내리는 가을비는 씨앗을 움트게 하는 비입니다. 이듬해 3월에 내리는 봄비는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 전에 열매 맺게 하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는 가나안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비가 일정하게 내리니까 사람들은 가을비와 봄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연히 주어지는 것

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봄비 철에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미 약속된 축복이라도 간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비를 그치고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먹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소나기가 오기 전에는 짙은 먹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먹구름이 짙을수록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먹구름을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어둠을 가져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어둠 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삼 분의 일은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빛 가운데 활력 있게 나가는 힘은 어둠 속에서 얻습니다. 어둠의 먹구름이 짙은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은 죄와 불순종에서 발생한 어둠이 아닙니다. 강력한 임재로 발생하는 어둠입니다. 짙은 먹구름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 봄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전에 반드시 먹구름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재난의 때에 먹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 봄비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소나기, 추수하게 하시는 소나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큰 위기와 재난 뒤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약속됐지만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봄비의 은혜가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먹구름 한복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봄비의 은혜가 임할 때 백성들이 변화되고 성숙합니다(스 10:6).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입니다(스 10:8).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거나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스 10:11~12).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봄비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져올 봄비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넘치는 위로, 굳건한 소망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아도 좋으니 고난이 없는 삶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아도 좋으니 고난 자체가 없는 삶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값있고, 능력 있고, 충만한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아홉 번이나 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성령님을 ‘컴포터(comforter)’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곁에 계셔서 ‘보혜사(保惠師)’, 돌보고 위로하는 분이라고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위로자’라고 번역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을 볼 때 눈물 흘리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서는 눈물을 주시냐고 말하고 싶습니까? 눈물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넘치는 위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7~10절).

고난 속에서 경험한 소망의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당시 맹수에게 던져져 싸워야 하는 이들은 주로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맹수는 아마도 바울을 공격한 대적들의 세력을 은유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으로 인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까? 바울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과 마음에 사형선고 내려야 한다는 것을 연결하면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의지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교만을 꺾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옴과 같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이 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옴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의인에게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 자신을 변호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이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옴기의 교훈은 옴

과 같은 의인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하물며 의롭지 못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 해결책이 자신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 소망까지 끊어집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왜 합니까? 죽지 않아서 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절망을 죽이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쓰지만 효과적인 약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을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롬 15:13).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7절).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오히려 굳건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넘치는 위로의 하나님과 굳건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넘치는 위로와 굳건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고, 굳건한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지난 연말은 예년처럼 분주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 해가 길게만 느껴진 것은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잠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만5천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1천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정부에서 통행금지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으로 당분간 주일예배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지만, 현지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되려면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와 인내로 사역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면접촉을 통한 사역이 어려워진 가운데 기쁨의 샘 유치원과 교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더 멋진 기쁨의 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9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목재 놀이터를 제작하고, 유치원 건물 옆에 계단도 설치했습니다. 학습 자재실 선반 제작, 주차장 문 페인트칠,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꾸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가꾸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쁨의 샘 선교센터 예배당과 유치원 다목적 강당에서 현지의 한 교단 창립기념행사, 현지인 목회자 연합회 회의, 어린이 사역을 위한 목회자와 교사모임 등 다양한 기독교 모임과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

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마 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기쁨의 샘 선교센터가 존재하는 또 다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각자의 감사제목을 나누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예수 사랑 나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지역주민, 성도,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천 개의 마스크와 160개 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옷, 장난감 등을 전도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힘든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유치원 학부모들과

의 반가운 만남과 준비된 작은 선물로 인하여 웃음 짓는 주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청소년들은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지난해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더욱 풍성해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 박성민, 정희진 선교사(도미니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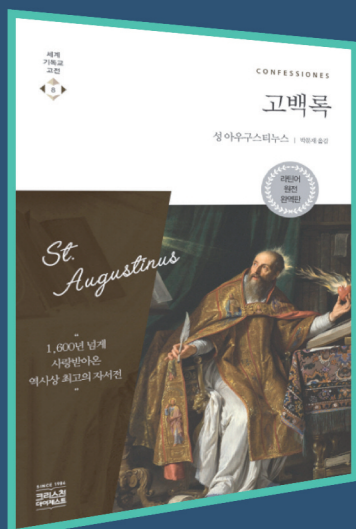
“풍성하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십시오”

CGNTV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자서전, 성 어거스틴 <고백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방송



1부 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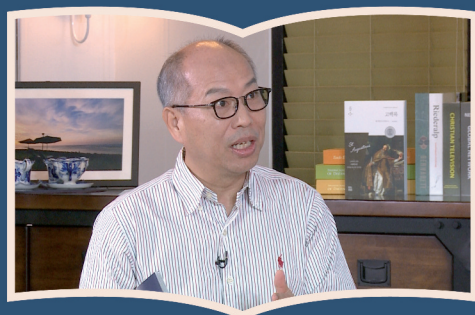
기독교 3대 고전, <고백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타파하는 시간

2부 1월 19일

탕아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자신의 방황했던 삶과 죄

3부 1월 26일

<고백록>을 통해 알아보는 진정한 회심의 의미와 삶의 적용



출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방송인 김필원, 배우 최령, 가수 임보미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는 CGNTV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GNTV 시청안내

IPTV KT Olleh tv ch.237 SK B tv ch.302 LG U+ tv ch.271 케이블 D'LIVE ch.304 LG헬로비전 ch.288 gcs푸른방송 ch.159 현대HCN ch.550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